



▲『近代法學教育 百周年紀念館』 준공 및 개관식
이 지난해 12월18일 백주년기념관『宙山紀念臺』(3
층)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문내는奉獻辭를 하고
있는李奭熙, 동첨회장)



▲ 대형감의·국제회의 등을 위한 최첨단 영상시설을 갖춘 대강당(3백석 규모)을 대우그룹 金宇中 회장의 아호를 따 『宙山紀念홀』로 명명하고, 현관제작식을 가진 후 동창회와 모교 관계유지가 기념촬영.



▲ 鮑于仲滿 서울대총장(右)이 百周年紀念館 건립비중 22억원을 희사한 金宇中 대우그룹회장 을 대신해 참석한 尹元錫 대우중공업회장(左)에 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竣工

架한 「正義의 鐘」
이날 기념식에는 鮑子
李相熙
서울법대동창회장
임현우 대학원계
그리고 설계 및 건설
설화사 관계자 등
2백여 명 참석한 가운데
내외구빈이 축석한
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근대법학교육
육체주년기념관」 준공 및
기념식을 개최하는 티이포
컷팅에 이어 「백주기념
념관」 「甫山기념관」
개념을 현판 제막식도
각각 있었다.
이어 기념관내 「甫山기
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식사 △불

서울법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전립한
기념관[충주] 및 개관식
이 지난해 12월 18일 수
오후 2시부터 관악캠퍼스
동기념관[笛山] 기념
홀에서 있었다.
또한 이날 법대
기념하는 개교
제작 현기[顯基]

여를 해 왔다"고 말하고자 만족하지 않고 대체로 깊은 차이를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양과 윤리를 기상으로 급변하는 사회적인 진진에 조급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혁신을 통해 차원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다.
여기서 역사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게는 혁신을 통해 완성되어 왔던 학제적 관점이 있다. 예전에는 학생들은 각각의 학제를 전공하면서 학제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제적 관점은 학제를 넘어서 학제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예전에는 학생들은 각각의 학제를 전공하면서 학제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제적 관점은 학제를 넘어서 학제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百周年紀念 상장물『正義의鐘』打鐘
宙山紀念壇·同窓紀念壇 현판除幕
紀念館 건립 有功者 感謝牌 증정

21세기의 글로벌 협력 속에서 세계를 드높여 하는 가치관의 내실화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흔쾌히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현실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교 밖 학습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밖 학습은 학교 내 학습과 같은 질적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내 학습과 학교 밖 학습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同窓紀念誌」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는 同門有志들.

■ 서울大學校總長 授與
▲ 李魂熙(法大9、法大
同窓會會長、大宇 JAP
A 會長)
▲ 韓震鏗(法大8、國際
貿易經營研究院會長)
■ 師大大學校法科大學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
 會長 授與

▲ 崔元碩(東亞그룹) 會長
▲ 尹世榮(法大14、法大14、
同窓會副會長、서울放送
代表理事會長)
▲ 金憲出(三星生命保險
社長)

長授興

法大教授 李泰魯 法大8、서울
▲李泰魯(서울大
督教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慈會長 持與
▲朴基福(三星電
株) 董事長
▲朴秉豪(法大
名譽教授) 泰榮
代表 泰榮
現場所長
金鐘星(株) 建築
代表 俊鉉
徐丙道 近代法學教育
百周年慶典 新建工事
泰榮